
성숙한 제자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제11주간

제11주간: 성숙한 제자도 들어가는 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예수님께서 당신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일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것을 확실히 보셨습니다. 그분이 빵과 물고기를 늘리셨을 때는 다 먹고도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부활하신 뒤에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 먹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비노노빌레’ 와인과 ‘오트 쿼진’ 코스타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생겼습니다. 이때 스승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본받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 전에 성호를 긋는 것은 뭔가 다른 나눔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는 신호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율법과 예언자들에 대한 지식, 하느님의 뜻에 관해 그분이 아는 모든 것을 친구들과 나누셨습니다. 가톨릭 교사들은 어느 과목을 담당하든지 바로 이런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연히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도우러 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분은 숨을 거둔 어린 소녀를 찾아가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백인 대장이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은 곧바로 그에게 가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늦었다는 것을 아시면서 라자로에게도 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터디터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친구들에게 주셨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비결도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서

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그리고 그들도 제자가 되는 길로 이끌릴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생각입니다. 앓는 딸을 둔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의 소명 의식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파견된 것입니다.(마태 15,21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를 당신께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유능한 보스나 뛰어난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접고, 가족의 필요에 맞추면서 아버지가 되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빛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람을 돌보는 자상함으로 빛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책임이든 맡은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로 봅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열린 태도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을 나누셨습니다. 때로 그분은 군중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설명은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때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변모’라는 신비 체험의 목격을 그 세 사람에게만 허락하셨고,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동료들하고만 은밀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냐는, 남들이 쉽게 여쭙보지 못하는 질문도 요한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숙한 사람들은 남들의 친밀함을 시기하거나 은밀한 나눔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전제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과 공포를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게 보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친구들을 당신 곁에 두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셨

습니다. 아무도 필요치 않다는 마초 같은 발상은 지옥에서나 통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와 행동할 때, 하느님의 통치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통치는 인간 군주제나 고결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통치의 집행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도 도움말

영적 독서

이 영신수련을 하는 동안 당신 방식으로 기도하면 서도 다른 방법들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과 직장의 모든 것에 많은 양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근육과 땀을 동원하는 단순 반복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바로 압니다. 수 세기 동안 감춰져 있던 수많은 작용 원리들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계적으로 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비밀로 감춰졌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숙한 제자도에는 성숙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학습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잘, 지혜롭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새로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연구와 교부 연구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임을 일깨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오듯,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구성원들은 '성도'라고" 불립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3항)

이것이 성숙한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숙한 기도에는 우리의 기억과 지력과 의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은 온전히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 보고, 숙고하는 내용도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이 선택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에서 성숙할수록 우리의 지식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하느님에 관한 성숙한 체험의 의미가 거의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세속의 매체에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거기서 찾는다고 해도, 계시 진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에게 요약해 준 새로운 앎을 배운 뒤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주교회의에서 나온 『성인 가톨릭 교리서』에서부터 시작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이 책은 36개 장으로 구성되었고, 각 장은 우리 역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인(이미 시성되었거나 인정받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또한 교리를 요약하고 성찰할 요점들을 뽑아서 제공합니다. 미국적인 가톨릭 신앙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인용구들과 그룹 토론을 위한 질문들도 실려 있습니다. 각 장은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이 교리서 외에 전국적으로 가톨릭 출판물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많은 교구에서 지역 상황에 맞춘 성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성숙한 제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합니다.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기도에 양분이 되는 것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첫 원칙을 뒤집은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주제에 관한 것들도 읽어서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드십시오.

마지막 원칙은 당신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하십시오. 여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알지 못하고 하느님을 아는 데서 자만이 나온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아는 데서 절망이 나온다. — 블레즈 파스칼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피정의 끝이 다가올수록,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든지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기억하십시오. 성찰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2. 이번 주간에: 사랑을 주고받도록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 계속 묵상하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올바른' 종교인이 예수님에게까지 친절을 베풀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그가 구세주로 여기는 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회개, 큰 사랑, 용서가 믿음 안에서 함께 움직인다고 짚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루카 7,36-40.44-48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 뒤쪽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단상 화해

자정 미사 전에 고해를 듣는 본당 신부 이야기를 다들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당에는 신자들이 꼭 찾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고해소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죄를 지은 분만 줄을 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자정 미사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실화는 아니겠지만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입니다. 화해 성사에 개혁과 쇠신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개혁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변질된 '고해성사' 관습을 개혁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매주 또는 매달 고해소에 데려가는 것이나 어른들에게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무심결에 한 실수, 빼끗 잘못했던 일, 그르친 일들을 전부 합산해서 회수와 함께 줄줄 읊고는 사죄받고 보속으로 성모송 세 번과 주님의 기도 세 번을(큰 잘못이라면 묵주기도를) 받던 때를 기억합니다.

폴턴 신 주교처럼 진지한 설교가가 고해성사에 대해 놀리듯이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 주교는 수녀님들의 고해를 듣는 것은 강령이로 투석형을 받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녀님들을 칭송하는 의도였습니다. 마음씨가 사랑스러운 이들의 죄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담이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천진한 아이들을 고해소에 줄지어 들여보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성사를 더욱 심오하게 형성하려면 이 성사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쇠신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명확하게 생각할 때 쇠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대개 수평적입니다. 자신을 비추면서 느끼는 수치,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입니다. 성숙한 제자들조차도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빛나고 있지 않다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이 성사를 받는 데 있어 진정한 쇠신은 교회가 현재 이 성사를 부르는 방식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화해의 성사입니다. 우리 죄와 죄스러움을 인정하면 고해소를 찾게 됩니다. 보속과 사죄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합니다.

이 은총은 우선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본래 우리 자신과 화해하게 해 줍니다. 그러고서 삶의 이 순간에 하느님이 우리를 데려오신 지점과 화해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과 화해하게 해 줍니다. 바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 도전들 안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화해 성사는 규범, 규칙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와 관련됩니다. 이 성사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는 기쁜 소식의 샘물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많이 뉘우치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랑을 베풀면,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하느님께 받는 것만큼 크게 회개할 것입니다.

메모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원망은, 독약을 내가 마시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 넬슨 만델라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이 나오는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들, 특히 지혜, 통찰, 용기를 활용하십시오.
2. 이번 주간에: 영적 성장 여정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느님이 선사하신 성숙의 표징에 주목하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인간적인 심리학에 따라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 서로 수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8,15-22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단상

용서하는 권한

서로 용서하라는 주제(마태 18,21)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 이미 성찰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을 닮아 성장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용서합니다. 특히 배우자들이 이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용서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하느님처럼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이들을 도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까이 따르던 이들에게 교회에 관해 말씀하실 때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을 때,’ 당신에게 직접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본당이나 학교, 교구, 공공기관에 잘못했을 때도(마태 18,15) 어떻게 공동체를 해치는지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데 뭐라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때’ 공동체를 해칩니다. 직장 동료나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흉을 보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킁킁거리기만 할 때 공동체를 해칩니다. 본당 사목위원이 개인 의견을 큰소리로 내세우면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다들 돌려 말하기만 할 때 공동체를 해칩니다.

용서하는 권한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특권과 짝을 이룹니다. 당신은 도움을 ‘교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마태 18,15)

라고 충고하십니다.

예를 들어, 과음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걱정된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험담하는 동료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만으로도 부드러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목위원 개인 의견에 대해 조용히 묻는다면 그 위원이 자기 의견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알고자 애쓰는 율법 학자의 이해를 도우셨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마르 12,34) 예수님은 용서하는 권한을 연민과 이해심을 가지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아주 부드럽게 ‘교정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요한 8,11)

나자렛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는 중에, 주변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을 때, 완벽하지는 않아도 더욱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언제나 연민의 마음으로, 자비롭게, 우리의 역할은 판단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느님이 주신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는 형제자매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 하나하나를 무한히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업신여기시겠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곰곰 생각해 봅시다.

메모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사람들은 때로 불합리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 마더 테레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이 담긴 구절들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떤 덕목으로 초대하시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2. 이번 주간에: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성숙했다는 신호를 확인해 보고
당신이 그들을 보는 시선에 영적 통찰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주목해 보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은 인간적 심리학에 따라 행동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놀라운 권한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 서로 수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8,15-22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내가 붙들고 있는 원망이 나를 구속한다. 나는에서 풀려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함으로써 내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나는함으로써 용서할 수 있다.

.....한 경우에 교회 공동체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용서는 계속 진행된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들을 용서했고,
지금은 그들을 위해라고 기도한다.

솔직히 생각하면에게 용서를 청해야 할 것 같다.

제11주간 4일차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미사는 단순한 모임의 장이나 교리 교육의 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수난, 죽음, 부활의 재현이다.

— 존 폴리 (예수회)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우리에게 물려 내려온 것에 다시금 투신할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로써, 영과 신성으로써, 성체성사 안에 현존하십니다.
그 이치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생성되고 지금도 팽창하는 이치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이해 범위 밖에 있습니다.
2. 이번 주간에: 당신이 하는 것들,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여러 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몇몇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돌아보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들을 어디에 적었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 보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에게 이 성사를 남기십니다. 우리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1코린 11,23-32

사실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단상

희생 제사인 미사성제

‘미사성제’가 한때 흔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희생 제사’ 개념에 불편을 느껴 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불편함은 우리가 자기충족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쾌락을 갈망하는 우리 문화는 희생 제사와 상충합니다. 하지만 희생 제사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기록을 잘못 읽은 것이 우리가 미사를 희생 제사와 관련짓기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약을 생각하면 동물을 도살하고 그 피를 하느님께 바쳐서 진노를 달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죄에 대한 성부의 진노를 달래고자 인류가 바치는 제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의미는 우리의 오해를 뒤집습니다. 이 희생 제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주신 것입니다. 필리피 교회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는 성자께서 ‘자신을 쏟아서 비우시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성 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 가

운데 가장 취약한 이, 쓸모없는 노예처럼 다뤄지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므로 화해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1요한 4,10)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그 희생 제사는,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를 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미사성제 안에서 우리는 당신의 신적인 궤도에 인류를 올려놓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을 상징과 진리를 통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품으십니다. 성부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입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에페 1,10)

메모

제11주간 5일차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구속주께서는 특히 영성체 후에 모든 신자 각각과 가장 가까이 일치하시며,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기를 열렬히 원하신다. — 비오 12세,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관하여」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이 기회에 주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고, 경배와 찬미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당에 들어서 그분을 만나시겠습니까?
2. 이번 주간에: 이미 결정하고 선택한 사안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우리가 미처 청하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가 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 성사를 남기십니다. 우리 자신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청합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1코린 11,23-32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성체를 모실 때 나는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체성사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나는로써 감사를 표현한다.

성체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룰 때 나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의식한다.
그때 나는을 기억하고 싶다.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는 표징에는이 있다.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찾는다면, 그리스도를 택하라.
그분 자신이 길이시다.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다시금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리고 기도 전에 항상 하듯이 하느님 현존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2. 이번 주간에: 습관을 돌아보고 당신에게 빛나는 느낌을 주는 습관은 무엇이고 그늘진 느낌을 주는 습관은 무엇인지 숙고해 보십시오. 빛나게 하는 것은 더 심화하고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버리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예수님 생애의 어떤 사건들을 관상하면 특별히 더 결실을 얻습니다.
이 구절도 많은 사람의 기도에 결실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7,1-9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단상

기억 속의 나날들

기도하다 보면 환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을 이제 는 알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때를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한번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따로 광야에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영광스러운 현존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지금'인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 다.”(마태 22,32) 그때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웃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이 현존에 들어가고 있는 지도 두 달이 넘 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분으로서 사명에 집중하 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잠깐이라 도 자신을 잊고 하느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위로를 당 신도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지만 당신 도 빛났을지 모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밑에 는 그분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해 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안달하는 어떤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간질 병에 걸린 그의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

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광휘로 이 아둔함에 약간의 빛을 비취 주셔야 했습니다. “아, 믿음이 약한 자들 아.”

당신도 비슷한 체험을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도 세상은 당신이 기도하기 전과 똑같이 혼란 합니다. 이 피정이 끝난 다음 당신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일 것입니다.

군중을 떠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을 기억하십시오.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 럼 빛날 것이다.”(마태 13,43)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도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이 주제를 꺼낸 적이 있습 니다. 성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는 이들이 일상 을 사는 동안에도 해처럼 빛나고 있음을 스스로 깨 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토마스 머 튼도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해처럼 빛나지 못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빛나는 날이 오리라고 분명히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 라의 증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희망으로 우리는 행복한 빛을 냅니다. 아직은 해처럼 빛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 는 빛입니다.

메모

제11주간 7일차

성숙한 제자도

청하는 은총

현세와 천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선물을 받은 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청합니다.

한 걸음 더

오늘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호주는 지금 이미 내일이니까.

— 무명씨

오늘의 요점

1. 기도 길잡이: 보다시피, 예수님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할 때 가장 가까운 친구들만 데려가신 적이 여러 번입니다.
2. 이번 주간에: 한 주를 마치면서, 유지하고 싶은 습관과 고치고 싶은 습관의 목록을 정리해 보십시오.
3. 주목할 성경 대목: 아무 말이 없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밝게 빛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부의 목소리는 어떠했을까요?

오늘의 생각

오늘의 기도

마태 17,1-9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삶의 독해, 기도를 내 삶에 적용하기

“이는 내 아들”이라는 성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을 느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에게을 의미한다.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나에게를 드러내실 때 놀라움과 겸허해짐을 체험했다.

정말로 빛나고 생생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예를 들면,

몇 주 동안 이 기도를 하고서 나는 내가 속한 세상에 같은 빛을 가져가겠다.

표지석

-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며 청지기들이다.
-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 구분된다.
- 성숙한 기도에는 성숙한 지식과 통찰이 필요하며, 거꾸로 이것들이 기도로 인해 깊어진다.
- 우리에게는 타인을 용서할 권한이 있다. 용서할 때마다 이 권한은 우리에게 더욱더 참되어진다.
- 교회는 우리처럼 죄스러운 인간들로 구성된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초대를 받는다.
- 미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다. 미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금 드러낸다.

한 주간 매듭짓기

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보게 된 것은,

묻고 싶은 질문은,

이번 주간에 일상생활의 체험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 그것은,

함께 피정하는 동료들과 동반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